

정부 '알박기' 말썽 J프로젝트 송천지구 대만 자본 투자 유보

사업 차질 우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사업지구 내 최적의 개발지로 꼽히는 '송천지구'에 투자할 예정이던 외국계 자본 일부가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PC(개발전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미룬 데 이어 투자까지 유보함에 따라 J프로젝트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로 예정됐던 송천지구 투자 주관사인 미국 트러스(Truss) 그룹의 SPC 설립과 사무소 현관식이 4월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5월로 연기되는 등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트러스 그룹은 사업대상 부지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져 SPC설립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트러스 그룹의 SPC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대만 후주(FuTsu)그룹도 최근 '세계경기 침체와 자

국의 정치·경제 여건상 당장은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트러스 그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건설사인 후주그룹은 지난해 7월 미국 트러스그룹의 차이나텔(ChinaTel)사와 함께 송천지구 45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었다. 하지만, 트러스 그룹의 SPC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최근엔 대만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투자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송천지구' 투자 주관사인 트러스 그룹은 중국과 이스라엘 기업 등 다른 투자사를 모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투자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2천만~3천만 달러의 외자만이라도 먼저 국내에 들어오면 농식품부도 농어업회사 설립계획을 철회할 것"이라며 트러스그룹을 현재 설득 중이지만, 트러스그룹은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SPC를 설립하거나 한국으로 자금을 보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대만의 후주그룹은 사업 주관사인 트러스그룹에 자본을 투자하는 회사일뿐이어서 후주그룹의 투자 보류 입장은 외자유치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열린 트러스그룹 이사회에서 송천지구 투자가 공식화된 점, SPC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중 일부인 10만 달러가 아시아본부에 송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트러스 그룹의 투자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트러스그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서는 등 SPC 조기 설립과 자본금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부지 확보를 둘러싸고 농식품부와 의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트러스 그룹의 SPC 설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 주관사인 트러스그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SPC 설립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관방제림 5월의 서정

3일 상큼한 5월의 하늘과 짙은 녹음이 어우러진 담양 관방제림 길을 걷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이 일대에서 진행되는 제11회 담양 대나무축제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갈등의 5월, 빛바랜 5·18

유족회·부상자회, 5·18 추모제 옛 도청서 열기로

5·18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이하 행사위)가 4일부터 광주·전남 일대에서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해마다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치렀던 추모제를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거행하기로 해 도청 별관 철거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행사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의 '5·18 어린이 학교'가 4일 광주방림 초교와 광산구 운남동 근린공원, 담양 등지에서 열려 5월 행사의 서막을 알린다. '5·18 어린이 학교' 참가자들은 행사장에서 작은 운동회와 농촌체험활동을 한다.

이런 체험행사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이 실천했던 나눔과 대동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만장 일치전도 이번 추모제에 열린다.

그러나 29주년 기념행사는 본격 시작됐지만 5월 정신계승에 앞장서야 할 5·18 관련단체들끼리 갈등을 빚고 추모제마저 장소를 옮겨 치르기로 하는 등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사)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부상자회원 등은 오는 17일 추모제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옛 전남도청 별관 이전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옛 전남도청 안 천막 앞에서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날(18일) 열린 29주년 기념행사는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5·18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은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 영령들의 넋을 감히 볼 수 없어 처음으로 장소를 옮겨 추모제를 지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5·18 민중항쟁 29주년 행사위원회 안성례(여·71) 상임행사위원장은 "5·18 기념행사 중 가장 의미 있는 행사인 추모제를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수 차례 유족회 대표 등을 만나 얘기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5월 관련단체의 선택인데, 우리로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27명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들은 유럽권(13명), 아시아권(7명), 아프리카권(4명), 미주 지역(3명)으로 분포돼 있다. 광주 유치 확정을 위해서는 27표 중 과반인 넘는 14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럽이 개최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행위원들의 지지가 표로 직결될 수 있도록 개최지 결정 표결이 이뤄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종철기자 golee@kwangju.co.kr

신종플루 추정환자 1명 추가 발생

전남 30대 남성은 정상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60대 여성이 신종플루 추정환자로 진단됐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서

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60대 여성(62·무직) 1명이 2일 밤 추정환자로 확인돼 3일 새벽 경기도 성남국군수도병원에 격리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종플루 추정환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감염환자는 그대로 1명이며, 조사·검사 대상자는 23명으로 줄었다.

〈관련기사 5면〉

본부에 따르면 이 여성 추정환자는 미국 애리조나주를 여행한 뒤 신종플루에 걸린 51세 수녀가 탑승한 미국로스앤젤레스발 항공기를 타고 지난 달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 발열과 인후통이 발생해 다음 날인 30일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았다. 이 환자는 감

염환자와 반경 2m 이내에 앉지 않아 비행기 내 화장실 등에서 감염됐거나 미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국내 첫 환자인 51세 여성은 퇴원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1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된다며 보건소에 자진 신고한 34세 남성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 남성의 혈액을 채취해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플루엔자 A(H1N1)' 음성 반응이었다. 단순 감기 증세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아직 이 남성 외에 다른 신고자는 없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연남뉴스

U대회 본격 득표전 돌입

3개 도시 실시 마무리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이 임박하면서 본격적인 득표전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2015 U대회 유치 희망 3개 도시에 대한 실사가 4일 캐나다 에드먼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에드먼턴 3개 도시는 오는 23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를 겨냥해 본격 득표전에 돌입했다. FISU집행위원 27명이 참여, 개최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FISU 총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유럽측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